

응애류의 천적 *Oligota kashmirica benefica*의 포식특성 Predatory Characteristic of *Oligota kashmirica benefica*, the Natural Enemy of Spider Mites

최덕수, 김규진¹, 박종대²

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난지과수시험장, ¹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,

²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물환경연구과

응애류의 포식성 천적인 *Oligota kashmirica benefica*는 국내 토착천적으로 유자에 발생하는 굴응애의 유력한 천적이다. *O. kashmirica benefica*를 이용하여 과수원과 시설작물에 피해가 심한 굴응애, 점박이응애, 차응애 그리고 긴털가루응애를 먹이로 포식특성을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천적의 먹이인 굴응애를 20, 30, 40마리씩 다르게 공급하여 일평균포식량을 조사한 결과, 25°C에서 *O. kashmirica benefica* 성충이 각각 16.7, 21.9, 28.9마리/일로 먹이량이 많을수록 포식한 양도 증가하였다. 15, 20, 25, 30°C의 항온조건에서 *O. kashmirica benefica* 성충의 굴응애 포식량은 각각 11.5, 17.0, 21.9, 23.1마리/일로 온도가 높을수록 포식량도 증가하는 경향이였다. 또, 25°C에서 *O. kashmirica benefica* 성충의 응애종류별 포식량은 굴응애, 점박이응애, 차응애, 긴털가루응애를 21.9, 13.5, 14.1, 2.5마리/일로 굴응애의 포식량이 가장 많았고, 긴털가루응애 포식량은 매우 적었다. *O. kashmirica benefica* 유충은 성장할수록 포식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였고, 1령 유충은 2.8~3.6마리, 2령 유충은 11.2~13.0마리, 3령 유충은 17.7~25.4마리를 포식하였다. 유충기간중 총 포식량은 굴응애, 점박이응애, 차응애를 각각 77.7, 61.3, 73.0마리를 포식하였다.

한편, 굴응애, 점박이응애, 차응애를 같은 공간에 일정량 공급하고 *O. kashmirica benefica* 성충과 유충의 먹이선호성을 시험한 결과 3종 응애중 특정한 종을 선호하여 포식하는 경향이 없이 동일한 양을 포식하였으며, 먹이가 없을 때 천적의 발육단계간의 동종포식(Cannibalism) 정도도 극히 미미하였다.